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 버려 중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4일)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기재부 "지방비 30% 배정" 문화재관람료 감면 '빨간불'

본사주지협, "감면 예산 지원 거부"…조계종도 반대 입장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올해 변화되는 것 중 하나가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다. 이는 감면 관련 예산 419억 원이 확정돼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향후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감면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419억 원 예산 중 30%를 지방비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럴 바엔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역시 비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는 1월 17일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에서 제76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 등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419억 원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기재부, '민간경상보조' 사항임에도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 중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주체 '사찰'
지자체 전가 불가… 국가 지원해야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재무부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을 보고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 이후부터 전국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랍 24일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근거로 관련 예산 419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자료를 근거로 평균치에 해당하는 2019년 관람료 징수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무료관광객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 산출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기재부가 예산 419억 원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배정하고, 국고 30%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으면서 생겼다.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 지원비는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7:3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전금' 이기 때문에 지방비 배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실제, 지자체 경상보조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이 배정 · 집행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책정된 문화재 관련 보수 지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정산 보고 자료를 통해 지자체 등이 사찰 경영을 간섭할 우려도 있다.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으면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이중고도 예상된다. 또한, 예산을 사찰별로 신청 · 지원받게 되면 종단의 감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김정호 조계종 총무원 재무차장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감면의 주체는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임의로 민간 경상보조 사항을 지자체 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 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임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관람료 감면 예산 30%를 할당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될 경우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대한 예산을 전면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기재부가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을 고수할 경우, 예산 거부 등 종단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1월 18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우하)의 기자브리핑에서도 조계종은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구 기획차장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진행되면 전국 사찰에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만한 감면 정책을 위해서라도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구본사 및 문화재보유사찰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기재부의 지자체 경상보조 방침을 당초 협의대로 '민간 경상 보조' 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실제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발생한 만큼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 형태로 항목을 변경해줄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내외빈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불교지도자들 "동체대비 실천이 불교 근본"

종단협,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정관계 인사 등 300여 대중 참석해
진우 스님 "슬픔 나눔이 불자의 역할"
尹 대통령 "자리이타행으로 위기극복"


종단협 신년하례에서 종단 지도자들이 상호 소개하며 박수를 치고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와 불교 안팎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동체대비 실천으로 슬프고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은 동체대비 실천으로 슬프고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 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협 소속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국회 정각회 김영주 · 서영교 · 이수진 의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구태서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300명이 자리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부처님전에 연등과 꽃 공양을 올린 뒤 진리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을 다짐하며 3배 했다. 이후 서로 배례하며 새해인사를 나눴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동체대비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불자들의 역할은 그 잘못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웃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라며 "함께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하는 불교 본연의 자세"라고 설했다.

이어 "사회의 위기는 우리 불교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며 "불교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며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협 부회장 호명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자리이타행을 불자와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계묘년 한 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국민과 불자들을 희로애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힌 호명 스님은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한시도 부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자리이타행으로 작게는 이웃을 위해 넓게는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 및 행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자리이타와 동체대비행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나라 안팎이 녹록치 않지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함께 이로움을 위해 정진하는 자리이타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위기를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부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국회 정각회원 서영교 의원은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공복(公僕)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서 의원은 "향이 자신을 태워 향기를 내고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이 저희 의원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대중들은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비우고 바꾸고 살리는 삶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온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 "참회하고 서원하면서 정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승가공동체 정신을 살려 화합하면서 원융무애의 불국정토를 일구겠다"고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부처님전에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